

# 테라스서 사과·멜론 등 지역 농산물 판매 '시몬스의 상생'

Q 르포

시몬스 '파머스 마켓'을 가다

경기 이천 마장면으로 귀농해 11년째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채정신씨. 채씨는 지난 16일부터 18일 사이엔 집에서 30분 가량 떨어져 있는 '시몬스 테라스'로 매일 출근했다.

자신이 직접 기른 빼알간 사과를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에 내다 팔기 위해서다.

채씨는 "올해는 장마가 길고, 태풍도 와서 사과농사가 예년 같지 않다. 수확량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사과의 색깔이나 모양, 크기도 날씨 때문에 좋지 않다. 가격은 좀 올랐지만 수확량이 크게 감소해 버는 돈은 오히려 줄었다. 그래도 이런 공간이 마련돼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사과맛을 보여줄 수 있어 기쁘다. (시흘동안) 100만원 정도만 팔았으면 좋겠다"며 활짝 웃었다.

파머스 마켓엔 채씨의 사과 뿐만 아니라 이천의 명물인 쌀을 비롯해 고구마, 포도, 멜론, 배, 꾸찌뽕, 블루베리 등 지역내 10여 곳 농가의 특산물이 나와 손님을 기다렸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납품처를 잃은 학교급식 협동조합인 '이천시 출하회'도 이번 장터에 표고버섯, 청피망, 가지 등 여러 가지 야채를 내놨다.

파머스 마켓은 시몬스침대가 이곳이 천 모가면에 생산공장인 '시몬스 팩토리움'을 짓고, 본격 가동한 2018년 가을부터 공장 바로 옆 시몬스 테라스에서 시작해 매년 봄, 가을에 운영하고 있는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다.

기업이 공장을 세워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돈을 벌어 지역에 세금을 내는 것 외에도 지역사회와 공존하고, 같이 효율화하는 취지로 팔을 걷어붙이고 본격 시작한 일이다.

장터가 열린 시몬스 테라스엔 지금까지 25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다. 시골 동네에 아트 전시관, 시몬스침대



시몬스가 지난 16~18일 사이에 이천 시몬스 테라스에서 연 파머스 마켓 전경.



시몬스 파머스 마켓에서 사과를 판매하고 있는 채정신씨.

/김승호 기자

시몬스, 공장 가동 2018년부터  
농·특산물 거래장터 '파머스마켓'  
"코로나19로 침체된 농가에 활기"

진열대·디스플레이 등 물품 제공  
농산물 구매, 방문객 선물 주기도  
"테라스, 문화공간·사랑방 역할"



시몬스 테라스 방문 고객들이 공연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의 브랜드 뮤지엄 '헤리티지 앤리', 매트리스 랩, 카페 그리고 침대·소품 판매장 등을 두루 갖춘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서면서 입소문을 타고 곳곳에서 몰려온 덕분이다.

시몬스족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침체돼 있는 상황을 감안해 '파머스 마켓' 대신 행사 간판을 '서포트(SUPPORT) 이천'이란 이름으로 바꿔 달았다.

현장에서 만난 김성준 상무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사실 이번 장터를 취소할까도 고민했었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로 침체된 분위기를 잠시라도 반전시키고, 지역 농민들에게 활력을 모색하고 힘을 주고, 또 고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며 행사를 열자고 마음먹었다. 고객들이 많이 와도, 적게 와도 걱정은 마찬가지더라(웃

음)"고 말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침대를 지향하는 시몬스가 지역과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만드는 지속 가능한 소통의 장으로 파머스 마켓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파머스 마켓 참여 농민들은 농산물을 갖고 오면 된다. 진열대, 디스플레이 등 장사에 필요한 모든 물품은 시몬스족이 제공한다. 계다가 일정 금액 만큼 농산물을 미리 구매한 뒤 이를 방문객들에게 선물로 주기도 한다. 마켓이 끝난 후 팔다 남은 농산물을 일괄 구매해 공장내 직원식당의 식자재로 사용한다. 판매 수익금 전액도 농가에 다시 지원한다.

판매 농민들과 파머스 마켓을 찾는

고객들에겐 '남는 장사'지만, 주최측인 시몬스는 '밀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김성준 상무는 "시몬스 테라스는 시몬스가 지역사회, 고객들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이다. 사랑방"이라며 "전시관에서 수시로 열리는 옥션을 통해 생긴 수익금도 파머스 마켓을 위해 활용하는 등 단순기부가 아니라 선순환을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몬스 테라스가 있던 자리는 당초엔 동네 마을회관이었다. 시몬스는 공장을 짓고, 문화공간을 만들면서 인근에 마을회관을 새로 지어 동네에 기부했다. 공간을 대체한 시몬스 테라스가 또 다른 사랑방이 된 것이다.

파머스 마켓 준비 기간엔 시몬스의 전시 큐레이터들도 농산물 MD로 변신한다.

시몬스 테라스 이해임 큐레이터는 "입점 농가들은 우선 이천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파머스 마켓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또 품목은 서로 중복되지 않게 선택하고 있다"면서 "농가들을 직접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농산물을 많이 접하다보니 본업이 아닌 일도 조금씩 능숙해지더라"며 웃었다.

게다가 파머스 마켓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있다.

기자가 방문한 날도 공연이 진행돼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다.

경기도 평택에 산다는 한 30대 직장인은 "평택에서 이곳까지는 30분 밖에 걸리지 않아 아내, 아이와 함께 한 달에 한번씩은 꼭 찾는다"면서 "쇼핑도 하고, 체험도 하는데 오늘은 마침 장터도 열리고, 공연도 보게 돼 더 즐거운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주말, '파머스 마켓 : SUPPORT 이천'이 열린 이곳은 올 겨울 크리스마스 시즌엔 형형색색의 일루미네이션이 또 다른 추억을 선사하는 공간으로 다시 탈바꿈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르노삼성·한국지엠, 임단협 갈등 분수령

양사 노조, 임금 문제 등에 파업 땐 글로벌 본사의 구조조정 등 우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국내 완성차 산업이 생산량 감소로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르노삼성자동차와 한국지엠 등 외투 기업 2개사의 한숨은 유독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감소와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갈등으로 살얼음 판을 걷고 있기 때문. 완성차업계 상위 단체인 금속노조도 투장보다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임금인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르노삼성과 한국지엠 노조는 최근 합법적으로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이번주가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입장차를 확인할 수 있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양사 노조가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파업에 돌입할 경우 글로벌 본사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물론 사업장 철수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노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 16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쟁의 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당장 파업에 들어갈 수는 없다.

다만 판매 실적 악화로 위기감이 확산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사간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을 선택할 경우 글로벌 본사에서는 한국 철수까지 고려할 수 있다.

르노삼성은 지난 9월에도 판매량을 끌어올리지 못했다. 6000대선이 무너지며 국내 완성차 브랜드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르노삼성은 9월 완성차 판매량이 7386대로 전년 동월 대비 51.4% 감소했다. 내수 판매량은 5934대로 같은 기간 24.1% 줄었다. 해외 판매량의 경우 80.4% 급감한 1452대로 집계됐다.

그러나 르노삼성 노조는 기본급 7만 1697원 인상과 700만원 규모 일시금 지급 등을 요구 중이다.

한국지엠도 임단협을 둘러싸고 노사 간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6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대책위 논의 결과 이번 주에 이뤄질 18차 임단협 단체교섭에서 사측 제시안 내용을 보고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MS) 수검을 모두 거부하고 조합원의 잔류 근무와 조기 출근도 하지 않기로 했다.

노조는 앞서 16일 오전 열린 17차 교섭에서도 미래발전방안에 대한 사측과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대책위를 열어 파업 여부 등을 논의했다.

노조 측은 이전 교섭 때와 같이 부평 2공장에서 생산하는 소형 SUV '트랙스'와 중형 세단 '말리부' 등이 단종되면 공장 폐쇄나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며 신차 배정 등 2022년 이후의 생산 계획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신차 배정에는 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날 부평 2공장의 말리부·트랙스 생산 연장, 근로자 1600여명의 고용 안정책 강구 등을 담은 제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르노삼성과 한국지엠 노사간 임단협을 둘러싼 방향성과 파업 여부는 이번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